

# 公低私高 고착...광주 기초학력미달 학생 감소

## 교육부 전국 중·고교 학업성취도 분석

### 광주 문성고·전남 창평고·문태고·능주고 학력미달 全無

### 향상도 광주 상위 20곳 중 공립고 3곳...여고는 송원여고 최고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016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공개하면서 학부모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국 1843개 고교와 3244개 중학교의 학업성취도 여부를 비교할 수 있는데, 학교의 노력으로 학생들 실력이 향상됐는지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학교 향상도'와 '보통학력 이상'(교육 과정의 50% 이상 이해) 비율 학생들 현황도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어서다.

자녀를 둔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우리 아이 학교는 어떨까'라는 궁금함이 크다는 점에서 시선이 쏠린다.

◇이 학교, 열심히 가르쳤네=교육부의 '학업성취도' 평가결과에는 '학교 향상도' 평가가 포함돼 있다. '학교 향상도' 평가는 올해 학업 성취도 평가를 본 고, 중3 학생들이 2~3년 전인 중3학년 때와 초등 6학년 때 지른 학업성취도 성적과 비교해 얼마나 성적이 오르거나 내렸는지를 보기 위해 도입한 개념이다.

다만, 교육부는 지난 2013년부터 학습 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 초등학교 6학년 등을 대상으로 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폐지, 현재 중 3 학생들의 경우 '학교 향상도' 평가 지표가 나오지 않는다.

개념만 보면 '학교가 이 만큼 노력해 학생들의 성적이 여기까지 향상됐다'는 지표로 받아들일 수 있는 대목이다. 학부모들 입장에서도 '내 자녀가 다니는 학교 측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학생들을 가르쳤을

까'를 판단하는 지표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게 교육계 안팎의 분석이다.

눈에 띄는 학교는 석산고다. 석산고의 경우 광주지역 고교 중 향상도가 가장 높았다. 국·영·수 과목을 모두 더한 종합 향상도가 20위권 밖이던 전년도와 달리, 올해는 향상도가 가장 많이 상승한 1순위 학교로 꼽혔다.

석산고 다음으로 서석고 향상도가 높았다. 서석고는 지난해 가장 높았던 학교다. 문성고도 눈길을 끈다. 문성고는 20위 밖에 머물던 전년도에 견줘 크게 상승, 올해는 5번째로 향상도가 높은 학교에 이름을 올렸다.

문성고는 보통학력 이상 학생 비율이 가장 높은 학교로 꼽히기도 했다. 송원여고는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여고에서는 향상도가 가장 높은 학교에 꼽혔다.

◇공·사립 격차, 인제쯤 줄까=학업성취도 평가 지표 중 '보통학력 이상 비율'도 관심을 가질만하다.

전남지역 창평고, 문태고, 능주고는 국·영·수 학 3개 과목에서 '학습 부진'이 아닌 '기초 학력 미달' 등급자가 전무했다. 창평고와 능주고는 국어를 제외한 수학·영어 과목에서는 응시생 전원(100%)이 보통학력 이상을 기록했다. 창평고는 전년도에 국·영·수 모두 보통학력 이상 100%를 달성했다.

광주에서는 문성고(국어 97.1%, 수학 98%, 영어 99.1%)가 보통학력 이상 학생

## 2016광주고교(2년)과목별 향상도 순위

(중3년에서 고교 배정된(인학)2학년 성적향상도, 단위:%)

순위	학교명	국어	수학	영어	합계
1	석산고	10.3	10.1	10.9	31.3
2	서석고	10.3	8.1	5.9	24.3
3	조대부고	8.5	4.7	6.5	19.7
4	광덕고	8.9	6.5	3.8	19.2
5	문성고	7.3	4.7	6.5	18.5
6	살레시오고	8.7	6	2.9	17.6
7	송원여고	7.2	7.3	2.9	17.4
8	대동고	7.8	4.1	4.5	16.4
8	고려고	6.4	5.9	4.1	16.4
10	진흥고	7.6	3.4	4.8	15.8
10	광주고	5.3	5.2	5.3	15.8
12	금호고	6.2	4.6	4.9	15.7
13	경신여고	6.7	6.7	0.7	14.1
14	대광여고	9.1	3.1	1.1	13.3
15	광주제일고	6.3	3.5	2.5	12.3
16	송덕고	7.4	2.5	2.1	12.0
17	정광고	4.3	3.6	3	10.9
17	동아여고	5.2	2.6	3.1	10.9
19	동신여고	7.8	3.1	-0.2	10.7
19	조대부고	5.6	4.1	1	10.7

## 광주 고교별(2년) 보통학력 이상 학생비율

(보통학력 이상은 통상 100점 만점에 50점 이상, 단위:%)

순위	학교명	국어	수학	영어	합계
1	문성고	97.1	98	99.1	294.2
2	대성여고	97.7	93	99.5	290.2
3	대광여고	98.6	92.3	99.2	290.1
4	석산고	95.8	96.5	97.7	290
5	살레시오고	95.5	96.2	96.5	288.2
6	서석고	95.7	95.7	96.3	287.7
7	상원여고	99.3	89.2	97.8	286.3
8	대동고	91.8	93	96.2	281
9	광덕고	92.7	91.9	95.2	279.8
9	고려고	92	92.8	95	279.8
11	수피아여고	94.5	89.5	95.3	279.3
12	금호중영여고	95.7	88.4	94.9	279
13	동아여고	94.7	86.8	95.8	277.3
14	송원고	91.2	91.9	93.5	276.6
15	송원여고	93.8	89.7	92.6	276.1
16	동성고	88.5	89.8	96.6	274.9
17	실월여고	93	86.2	95.6	274.8
18	문정여고	94.9	84.3	95.4	274.6
19	동신여고	94	87.6	92.8	274.4
20	경신여고	93.9	88.6	91.6	274.1

비율이 가장 높았다.

송덕고 사례도 눈길을 끈다. 송덕고는 지난해만 해도 광주에서 유일하게 응시생 전원(100%)이 국어·영어·수학 3개 과목에 대한 평가 결과, 보통학력 이상을 기록했었다. 하지만 올해는 상위 20위권 내 학교 명단에도 포함되지 못했고 '기초학력 미달' 등급(국어 0.3%·수학 1.9%·영어 1.1%)까지 발생했다.

'기초학력 미달'은 국가가 정한 교육과정 성취 목표를 20% 미만으로 달성한 경우를 의미하며 진급해도 수업을 따라갈 수 없는 학력 수준을 뜻한다. 송덕고는 지난해까지 자율형 사립고(자사고)였다.

대성여고는 보통학력 이상 학생 비율이 문성고 다음으로 높았고, 여고에서는 가장 높았다. 이외 대광여고·석산고·살레시오

고 등의 순위였다.

이러한 '공저사고(公低私高) 경향은 굳어지는 모양새다. 학교 향상도 지표로 보면 20위권 학교에 이름을 올린 학교 중 공립은 광주고·광주제일고(이상 자율형 공립고) 정도다. 또 보통학력 이상 학생 비율이 높은 학교에는 상원여고(자율형 공립고)가 10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주목할 점은 또 있다. 광주시교육청의 경우 매년 '기초학력 미달' 중학생 비율의 증가세가 두드러져 '기초학력 향상' 정책이 겹돈다는 비판을 받았지만 올해는 전년 대비 0.5%포인트(2015년 5.2%→2016년 4.7%) 감소했고 고교생도 전년(3.0%)보다 0.5%포인트 줄었다. 17개 시·도교육청 중 가장 크게 감소했다는 게 교육청 분석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

## 오늘의 날씨

해돋이 07:22    해질 08:27  
 해짐 17:20    달짐 18:56

### 체감온도 '뚝'

대체로 흐리다가 차차 맑아지겠다.

### 지역별 날씨 (°C)

광주	흐린뒤 맑음	5/11	보성	흐린뒤 맑음	4/11
목포	흐린뒤 맑음	7/11	순천	흐린뒤 맑음	6/13
여수	흐린뒤 맑음	8/13	영광	흐린뒤 맑음	6/10
나주	흐린뒤 맑음	3/12	진도	흐린뒤 맑음	6/12
완도	흐린뒤 맑음	8/12	진주	흐린뒤 맑음	5/11
구례	흐린뒤 맑음	4/11	군산	흐린뒤 맑음	6/10
강진	흐린뒤 맑음	6/12	남원	흐린뒤 맑음	5/10
해남	흐린뒤 맑음	5/12	축산도	흐린뒤 맑음	9/10
장성	흐린뒤 맑음	2/10			



### 바다 날씨

지역	바다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앞바다	북서~북	1.0~2.5	북서~북	1.0~2.5
	면바다	북서~북	1.5~3.0	북서~북	2.0~3.0
남부	앞바다	북서~북	0.5~1.5	북서~북	1.0~2.0
	면바다(동)	북서~북	1.0~2.0	북서~북	1.5~2.5
남해	면바다(서)	북서~북	1.5~2.5	북서~북	1.5~3.0

### 생활지수

보통	☁
뇌졸중	☁
보통	☁
감기	☁
낮음	☀
자외선	☀

### 주간 날씨

2(금)	3(토)	4(일)	5(월)	6(화)	7(수)	8(목)
☀	☀	☁	☀	☀	☀	☀
0/11	1/13	3/11	5/11	1/7	0/10	0/8

## 세월호 집회 물대포 피해 국가상대 소송 패소

세월호 사고 1주기 집회에서 당국이 차벽을 설치하고 캠페인(좌투액) 물대포를 쏜 데 반발해 시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 한소희 판사는 지난 30일 홍모씨 등 4명이 국가와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한 판사는 "시위 현장에 차벽을 설치한 행위는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당국이 CC(폐쇄회로)TV를 이용한 부분에 관해서는 "집회 차단에 CCTV가

이용됐다고 볼 증거가 없고, CCTV로 인해 참가자들의 개인정보가 노출됐다고 볼 수도 없다"고 봤다. 한 판사는 또 "원고 중 일부가 물대포에 맞았다고 주장하지만, 이 같은 주장이 사실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며 이 부분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홍씨 등은 경찰이 지하철 종각역 2번·4번 출구를 봉쇄한 점도 문제 삼았지만, 한 판사는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 밖에 일부 원고는 집회 현장에 있었던 증거가 충분치 않다는 이유로 청구가 기각됐다. /연합뉴스

## 광주 노로바이러스 유행...장염 조심

### 11월 검출률 32%...설사환자 한달새 4.5배 늘어

겨울철 한파가 시작되면서 구토, 복통, 설사 등을 호소하는 노로바이러스 장염환자가 광주에서 급증하고 있다.

지난 30일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의 관내 병원 입·내원 설사환자 가검물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 10월말까지 7%였던 노로바이러스 검출률이 이달 둘째주 17%, 마지막 주에는 32%로 한 달 새 4.5배 이상 증가했다.

노로바이러스 유행은 지난해보다 1~2주 빨라진 것으로, 이같은 추세가 내년 2월까지 지속될 것으로 연구원은 예상했다.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바이러스성 장염은 국내에서 발생하는 수인성·식품매개 질환 중 가장 흔한 질병이다. 최근 5년간

국내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발생은 연간 평균 40건으로 이 가운데 50%는 12월부터 2월 사이에 집중됐다.

겨울철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오염된 음식물 섭취 24~48시간 후 설사와 구토, 복통, 근육통 등 식중독 증상이 나타난다. 보통 1~3일이 지나면 자연 회복되지만, 면역력이 약한 소아나 노인의 경우 심한 탈수 증상을 겪는다.

세계적 수인성질환과장은 "노로바이러스는 예방 백신이 없어 손씻기 등 개인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며 "굴 등 어패류는 85도에서 1분간 충분히 익혀 먹고, 과일과 채소류도 깨끗이 씻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국정교과서 학교 배달...교사들 반발

### 전교조 교육부 사과 촉구...광주 교사들 "23개분야 수정 필요"

교육부가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을 일선 학교에 택배로 배달, 현장 교사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지난 30일 전교조 광주지부에 따르면 교육부가 이날 일부 역사교과서들에게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을 택배로 발송했다는 것이다. 교과서는 '교육부 학교정책실장 겸 역사교육정책 추진단장 금융한'을 발신자로 해 학교별 일부 교사들에게 배달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동봉한 A4 한 장 분량의 글에서 '교과서를 현장에서 활용하실 선생님들의 의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에 교과서 인쇄본을 별도로 전달해 드린다'며 '미진한 점이나 수정이 필요한 점이 있

으면 웹 공개 누리집에 의견 제출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택배를 전달받은 교사들은 '교육부 현장검토 인원이 아니냐'는 오해로 곤혹스러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교조는 학교현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 모든 교과서를 즉각 반포하고 해당 교사들에게 사과할 것을 교육부에 촉구했다.

광주지역 역사교과서들은 이날 중학교 역사, 고교 한국사 국정교과서와 관련, 철기시대부터 일제강점기, 현대사까지 23개 분야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재검토·수정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보성군**

“A beam of hope”  
이순신, 희망의 빛

2017 정유년!  
이순신 정유재란 승전 420주년!!  
새 희망으로 보성에서 다시 시작된다.

제14회 **보성차밭 빛 축제**

주제 · A beam of hope 이순신, 희망의 빛  
기간 · 2016. 12. 16 ~ 2017. 1. 31  
장소 · 한국차문화공원 및 울포솔밭해수욕장 일원